

제주말[濟州語]에 남아 있는 중세·근대어(1)

— 동사류를 중심으로(1) —

오 창 명*

차 례

I. 서 론

II. 본 론

- 1) '굴메들이다' 2) '답지다' 3) '눅뜨다'와 '눅뛰다' 4) '남직하다' 5) '베르쓰다, 페쓰다'와 '베카다', 베타다, 그리고 '베볼르다' 6) '유올다, 올다'와 '줄다' 7) '걸다'와 '걸루다' 8) '곤다' 9) '아끄다' 10) '갯다' 11) '엳다·옳다, 엳우다·옳우다·옳아다, 엳아들다·옳아들다, 엳아보다·옳아보다' 12) '발다'와 '발아덴기다' 13) '심다'와 '심지다' 14) '브리다'와 '찌지다, 치지다' 15) '지들루다, 지들우다'와 '지들왓지다', '지들르다, 지들루다'와 '지들이다, 지드리다' 16) '즈르다, 줄르다, 풀르다' 17) '무끄다·무치다' 18) '버물다'와 '버브리다/버물리다' 19) '춧다'와 '춧아가다, 춧아오다' 20) '중그다'와 '중가지다' 21) '자올다'와 '자올이다, '자올다'와 '자올이다', '주우룻하다'와 '자우룻하다' 22) '케다'와 '케우다' 23) '굿올리다'와 '수듬주다' 24) '그치다, 기치다, 곤다'와 '그차지다, 기차지다, 곤어지다'

III. 결 론

I. 서 론

이 글은 제주도방언(이하 방언이라 칭함)에 나타나는 중세·근대어¹⁾의 잔형을 찾아 정리하고, 방언에서 어떻게 형태와 음운이 변했는가, 그리

*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현재 확인되는 15~6세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언어를 중세어, 17~9세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언어를 근대어라 지칭한다.

고 그 의미적 변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아직도 연구가 미흡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어휘 및 형태, 문법적인 변화 등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필자는 방언의 어휘·의미적인 면에 있어서 중세·근대어와 대응되는 동사류 어휘를 찾아 정리하였다. 물론 종전에도 방언에 남아있는 중세·근대어의 어휘들을 정리하여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이 있지만, 기대만큼 심도 있는 연구를 펴지 못했다. 대개의 연구물들이 대응되는 어휘와 의미상의 대응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른 감이 없지 않았다.

이 글은 방언에서 확인되는 중세어와 근대어의 동사류를 찾아 연구한다는 계획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작업 결과이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선택된 어휘들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평소에 중세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방언과 대응되면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어휘들, 특히 다른 방언권에서 확인되지 않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뽑아낸 것들이다.

특히 이 글은 방언 사전 편찬에 있어서의 표제어 선정과 등재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썼다. 과거 방언 사전류에 등재한 표제어들을 살펴보면, 사전 등재 과정에서 연철 표기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분철 표기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여럿 발견된다. 곧 어떤 어휘는 중세어와 같이 연철 표기를 표제어로 올렸는가 하면 어떤 어휘는 오늘날과 같이 원형을 밝혀적은 표제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명사류 어휘는 원형을 밝혀적는 분철 표기를 했으면서도 일부의 동사류 어휘는 중세어와 같이 연철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옛보다[窺] 또는 ‘옛듣다’의 뜻을 가진 방언 ‘옛아듣다, 옛아듣다, 옛아듣다’ 등을 ‘여사듣다, 예사듣다’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사전의 표제어로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러한 것은 현재 발간된 옛말 사전류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원형인 ‘춧다[躡]를 표제어로 올렸으면서 ‘춧자가다’와 ‘춧자오다’는 연철 표기를 표제어로 올렸는가 하면,

‘굳다’[티]의 활용형 중 어두음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된 활용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굳다’를 표제어로 올리지 않고 ‘굳다’를 표제어로 올린 경우 등이 그것이다. 특히 복합어의 경우, 중세국어 시대의 문헌 표기가 그렇듯이 옛말 사전에도 연철 표기를 표제어로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이야 이해가 되지만 오늘날 발간하는 방언사전에는 적어도 어느 한 원칙(굳어진 표기는 제외하고 연철 표기를 할 것이나 원형을 밝혀적용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에 맞게 표제어를 올려야 한다. 앞으로 편찬되는 방언 사전은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II. 본 론

1) ‘굴메들이다’[洗]

방언 ‘굴메들이다’는 표준어 ‘갈마들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곧 ‘서로 번갈아들다’의 뜻을 가진 어휘이다. ‘굴메들이다’는 근대어 ‘굴므드리다> 굴므드리다/굴마드리다’에 바로 대응되는 어휘이다. 표준어사전에는 ‘서로 번갈아들다’의 뜻으로 ‘갈마들다’를, ‘서로 번갈아들게 하다’의 뜻으로 ‘갈마들이다’를 표제어로 올렸으나(자동사와 사동사로 구분하였으나), 근대어는 물론 방언에서도 ‘번갈아들다’의 뜻인 자동사로만 쓰인다.

석주명(1947)에는 나타나지 않고, 현평효(1985:359)와 제주도(1995:75)에 ‘굴메들이다’가 표준어 ‘갈마들이다’의 대응어로, 박용후(1988:101)에 ‘굴메드리다’가 ‘번(番)을 갈다’[糞]의 뜻으로 등재되어 있다.

① 그 일은 굴메들이멍 해사주, 혼자 해영 안된다.(그 일은 갈마들면서 해야지, 혼자 해서는 안된다.)

② 경 해영 일이 돼느냐? 여럿이 굴메들멍 천천히 해사주.(그렇게 해서 일이 되느냐? 여러 사람이 갈마들여서 천천히 해야지.)

예문 ①과 ②를 통해서 방언 ‘굴매들이다’가 확인된다. 사동사로 쓰인 다기보다 자동사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근대어 ‘굴므드리다>굴므드리다/굴마드리다’도 사동사가 아닌 자동사로 쓰였다.

③ 神主를 굴므드려 遷龕 거시라(送遷神主)<가례 9:27>

④ 수속을 위하여 굴마드려 제 방에 가 자더니(以係嗣當立 乃遷往就室)
<오류도 4:15>

⑤ 雙腿換跳 두 발로 굴마드려 뛰노타<한청 6:60>

예문 ③과 ④, ⑤를 통해서 근대어 ‘굴므드리다>굴므드리다/굴마드리다’가 확인되며, 이들은 한자 送과 遷, 換 등의 대역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送의 오늘날 훈은 ‘갈마들다, 번갈아, 교대교대로’, 遷의 훈은 ‘갈마들다, 번갈아 들다, 번갈아, 교대로’, 換의 훈은 ‘바꾸다, 주고 받고 하다 / 바뀌다, 교체되다’이다. 모두 ‘갈마들다’의 훈을 가지고 있다. 예문들은 모두 사동사가 아닌 자동사로 쓰였다. 유창돈(1964:10)에 ‘교대하다’의 뜻으로 풀어서 자동사로 보았으나, 남광우(1971:20)와 한글학회(1991:4917)에 표준어 ‘갈마들이다’의 뜻으로 풀어서 사동사로 본 것은 잘못이다.

‘굴므드리다’보다 이른 시기의 훈으로 ‘벽딛다’(送 벽딛글 덜<신합상:3>)가 있는데, ‘벽딛다’가 쓰인 예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벽딛다’는 ‘버금가다’의 뜻인 ‘벽-[次]에 ‘딛다’가 붙은 복합어로 보인다. 또 이와 비슷한 뜻으로 근대국어 시기에 ‘번굴다’가 쓰였다.

⑥ 충청들을 정제하야 번그라 노홀 양으로 하교(整器更番)<연병 30>

⑦ 邊番 번그다<동해 상:51>

2) '답지다'[悶]

방언 '답지다'는 표준어 '보깨다' 또는 '답답하다' 정도에 대응되는 어휘이다.

석주명(1947:31)에 방언 '답진다'가 표준어 '보깨다'의 대응어로('답진다'는 '답지다'에 현재의 선어말어미 '-ㄴ-'이 붙은 형태이다.), 박용후(1988:103)에도 방언 '답지다'가 표준어 '보깨다'의 대응어로 등재되어 있다. 현평효(1985:406)에서는 방언 '답지다'를 '먹은 것이 잘 삭지 아니하고 가슴 속이 간간하게 괴로워 못견디다'의 뜻으로, 강영봉(1997:67)에도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아 속이 간간하고 괴롭다'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 ① 벨로 먹은 것이 어신디 가슴이 답전 죽어지키여.(벨로 먹은 것이 없는 데 가슴이 보깨어 죽겠다.)
- ② 거 잘못 먹으면 답진다.(그것 잘못 먹으면 가슴이 보겐다.)

방언 '답지다'는 중세어 '답잡다', '답찌다' 등과 대응되는 어휘로 보이며, '답지다'의 실질적인 소급형은 '답찌다'로 보인다.

- ③ 더븐 버티 우회 뵈니 술히 덥고 안히 답잡거늘<월석 2:51>
- ④ 또 迷ᄃᆞ야 답잡디 아니ᄃᆞ리라=亦不迷悶ᄃᆞ리라<원각 상2-2:171>
- ⑤ 더욱 迷惑ᄃᆞ야 답찌 ᄃᆞ노니=重增迷悶ᄃᆞ노니<능엄 2:77>
- ⑥ 窮子ᄃᆞ 놀라 답쇼미 곤ᄃᆞ면=若窮子之驚得迷悶ᄃᆞ면<법화 1:208>

예문 ③과 ④에서 '답잡다'를, ⑤와 ⑥에서 '답찌다'를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 한자어 迷悶(갈피를 잡지 못하여 고민함)에 쓰인 悶의 대역어로 쓰였다. 悶의 오늘날 훈은 '마음이 우울해지다, 가슴이 답답하다, 뒤섞이다' 등이 있다. 예문 ③은 '안이 답답하거늘', ④와 ⑤, ⑥은 '마음이 답답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중세어 ‘답싸다’, ‘답쌌다’와 유사한 어휘로 ‘답답하다’가 있는데, 방언에서도 ‘답답하다’가 쓰인다.

- ⑦ 悶 답답 민<신합-나손본>, 鬱 답답 울<신합, 하:14>
- ⑧ 惡風이 안히 답답하야 죽느닐 고료티(治惡風心悶欲死)<구방, 상:2>

3) ‘눅뜨다’와 ‘놀뛰다’[躡·跳]

방언 ‘눅뜨다’와 ‘놀뛰다’는 표준어 ‘날뛰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석주명(1947:30)에 방언 ‘놀똥다’를 표준어 ‘날똥다’의 대응어로, 박용후(1988:102)에도 방언 ‘놀뛰다’를 표준어 ‘날뛰다’의 대응어로 등재하였다. 현평효(1985:391)에 방언 ‘놀뛰다’를 표준어 ‘날뛰다’의 대응어로, 방언 ‘눅뜨다’를 ‘무슨 일에 앞질러 잘 참견하다’ 또는 ‘깁신거리며 나대다’의 뜻으로, 강영봉(1997:60)에도 ‘무슨 일에든 앞질러 참견하다’ 또는 ‘깁신거리다, 나다니다’의 뜻으로 ‘눅뜨다’를 등재하여, ‘놀뛰다’와는 의미가 약간 다른 것으로 처리하였다.

- ① 늙은 놈이 젊은 첩하민 불 본 나비 눅뜨듯한다.(늙은 사람이 젊은 첩을 들이면 불을 본 나비가 날뛰듯한다.)
- ② 경 놀뛰지 말라.(그렇게 날뛰지 말라.)

예문 ①과 ②에서 ‘눅뜨다’와 ‘놀뛰다’가 확인된다. 예문 ①의 ‘눅뜨다’는 ‘나비가 정신없이 달려들거나 날뛰듯한다’는 뜻이다. 이는 표준어 ‘날뛰다’의 뜻 중에서 ‘어떤 감정, 느낌을 억누르지 못하여 마구 행동하다’의 뜻에 바로 대응된다. 방언에서 ‘눅뜨다’가 ‘놀뛰다’의 앞선 형태로 남아있으며, ‘놀뛰다’가 생겨나면서 약간의 의미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방언 ‘눅뜨다’에 대응하는 중세국어는 ‘눅뜨다>놀뜨다>놀똥다’이

다. ‘늡드다’는 현대 표준어에서 ‘날뛰다’로 변하였다.

③ 일죽 바리 强監 슌 나무니 막대 들오 늡드며=管夜에 有强監數十이 持杖鼓譟하야<번소 9:64> 亂辨 고기 못히 늡드다<한청 14:48>

④ 일죽 밤의 强監 두어 열히 막대 가지고 놀브며=管夜에 有强監數十이 持杖鼓譟하야<소해 6:59> 즐겨 놀브다가 인하야 주그니(歡踊遂死)<태평 1:9>

⑤ 언머 惡物의 늡뜸을 만나시리오(逢多少惡物刁蹶)<박해, 하:4>

⑥ 踴躍 늡뛰며 소릭 지르다<한청 3:4>

예문 ③~⑥을 통해서 ‘늡드다>놀쁘다>놀쁘다>늡뛰다’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대어 ‘날뛰다’로의 변화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한자어 鼓譟(북을 치고 함성을 지름.) 또는 歡踊(즐겁게 뛰.), 刁蹶(머리카락을 흔들면서 날 뛰.) 등의 대역어로 ‘늡드다’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표준어에서는 ‘날뛰다’로 변했지만, 방언에선 ‘늡뜨다’로 변하였다. 중세어가 표준어로 변하는 과정(두 모음 사이에서의 자음군단순화)에서 제1자음이 유음일 때는 자음군단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방언에서는 표준어와 같은 단계를 밟은 ‘늡뛰다’는 물론, 특이하게 제1자음인 유음 ‘리’이 탈락한 ‘늡뜨다’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4) ‘남직하다’[許]

방언 ‘남직하다’는 표준어 ‘남짓하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경남방언에도 같은 뜻의 ‘남직하다’가 쓰인다. 곧 어떤 수량에 차고 조금 남음이 있다는 뜻이다.

① 아마 열 개 남직홀 겨여.(아마 열 개 남짓할 것이다.)

② 혼 스무 해 남직홀 겨라.(한 스무 해 남짓할 것이다.)

방언 '남직하다'는 중세어 '남죽하다/남죽다/남죽하다>남죽하다>남죽하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③ 기리 열 자 남죽하니<월석 1:6> 남진어러 혼 익 남죽하야(時線方險)
<삼강 열:14>

④ 물 혼 마래 글혀 반 남죽거든 즈의 앓고(以水一斗煮 至六升去滓)<구간
6:54>

⑤ 혼 낫 피괴 열 돈 남죽하닐 사하라(一枚重十錢許剉)<구방, 상:54>

⑥ 三十里 남죽흔 사히 잇는 도하다(敢有三十里多地)<노변, 상:59>

⑦ 三十里 남죽흔 사히 잇다(有三十里多地)<노해-초, 상:54>

예문 ③~⑦의 '남죽하다/남죽다/남죽하다>남죽하다>남죽하다'는 한자 許 또는 險, 多, 餘, 至 등의 대역어로 쓰였는데, 모두 현대어 '남직하다'의 뜻에 대응하고 있다.

5) '베르쓰다, 페쓰다[割·劃]와 '베카다, 베타다', 그리고 '베불르다[剝·剖]

이들 방언에 대해서 종전의 자료집의 설명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주명은 방언 '베룻사다'와 '벳사다'(1947:47)를 표준어 '베째다'에, 방언 '브르다'와 '불르다'(1947:53)는 표준어 '발라내다'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박용후는 방언 '베르싸다'와 '페싸다'를 '속이 드러나게 열다'의 뜻으로, 방언 '베불르다'도 '속이 드러나게 열다'의 뜻으로 풀었다. 현평효(1985:455)에는 방언 '베르쓰다'는 '속의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벌리다'의 뜻으로, '베브르다'는 '헤어의 뱃속에 있는 창자 따위를 꺼내려고 배를 쪼개다'의 뜻으로, 방언 '베카다'와 '베쿠다'는 '헤어 따위의 배를 찢어서 창자를 꺼내고 서로 붙은 두 쪽에 베다'의 뜻으로 풀었다. 강영봉은

방언 ‘베르씨다, 베르쓰다’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벌리다’의 뜻(1997:권2.138)으로, 방언 ‘베타다, 베브르다’는 ‘바닷고기의 뱃속에 있는 창자 등을 꺼내려고 배를 가르다’의 뜻으로 풀었다. 방언 사전의 표제어로는 ‘베르쓰다’와 ‘페쓰다’를 올려야 한다. ‘베르싸-’와 ‘페싸-’는 활용어미와의 결합과정에서 변한 것이다.

위 설명들에 따르면 방언 ‘베르쓰다’와 ‘페쓰다’, ‘베카다’ 또는 ‘베타다’, 그리고 ‘베브르다’ 또는 ‘베볼르다’ 등은 모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중세어의 잔형이라 할 수 있다. 방언 ‘베르쓰다’는 중세어 ‘베서홀다, 베써홀다’[割·割]에, 방언 ‘베카다, 베타다’는 중세어 ‘빅롤 뷁다, 빅뵁다’에, 방언 ‘베브르다, 베볼르다’의 ‘브르다, 볼르다’는 중세어 ‘브리다>브르다’에 대응한다. 먼저 중세어의 예를 살펴보고 중세어 예들이 방언에서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뜻이 어떻게 분화되었는가를 살펴보자.

- ① 피히며 물을 베써흐러 天下물 세헤 눈호야=宰割山河야 三分天下야<어내훈 3:46—47>
- ② 割 베서홀 전<신합, 하:20>
- ③ 빅롤 뷁고 막수물 싸혀 내야<월석-중 23:73>
도적이 건져 내어 빅롤 뷁니라(賊拯出割腹)<동신, 열 4:12>
내 능히 심통과 피롤 빠 내야 마시며 덕먹게 햏야(我能剖心血飲厥)<두해-중 17:1> 센 개야지 빅타 드리며<계축 57>
- ④ 膾는 브릴 씨라<능엄 1:33>
- ⑤ 제 고길 브려 목숨 브려물 깃그며=自割其肉야 欣其捨壽야<능엄 9:74>
- ⑥ 去核 뷁 브르다<한청 13:8>

예문 ①과 ②의 ‘베서홀다, 베써홀다’[割·割]는 원래 ‘바히다>베다’[割]와 ‘사홀다·싸홀다>씨홀다’[切]가 결합한 복합동사이다. ‘베어 썰다’의 뜻을 가진 것인데, 아래의 예문 ⑦~⑨와 같이 방언에서는 고기의 배를

갈라 썰거나 물건을 넣거나 꺼내려고 할 때 지갑이나 부대 따위를 벌리다의 뜻으로 쓰인다. ‘베르쓰다’는 제주도방언에서 평음인 어두자음이 격음화하는 경향에 따라 ‘페쓰다’로도 나타난다. 이때 둘째 음절 ‘르’는 탈락한다. 또 ‘베르싸다’, ‘페싸다’ 등으로도 실현된다.²⁾

예문 ③의 ‘빅돌 ㅼ다, 빅투다[ㄱ·ㅍ]’는 방언 ‘베타다, 베카다’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다. ‘빅다>빅투다’는 원래 단순히 배를 가르다는 뜻이었는데, 방언에서 ‘베타다’로 나타나고, 다시 변이형 ‘베카다’가 생겨났다. 이들의 뜻은 배를 가름은 속의 것을 꺼내다는 뜻도 아울러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물고기 따위를 ‘베탈’ 때는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려고 서로 붙은 것을 두 쪽으로 베다의 뜻으로 쓰인다. ‘베타다’는 ‘빅>베’의 제주도방언 ‘베’와 ㅍ 또는 ㅍ의 뜻을 가진 ‘ㅼ다>타다’가 결합한 것이고, ‘베카다’는 ‘베타다’의 변이형인데, 방언에서 ‘타다’가 ‘카다’로 변하는 현상은 ㅈ의 뜻을 가진 ‘카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방언에서 ‘ㅼ’계 어두자음군은 먼저 격음으로 변하고 일부의 어휘에서 격음 ‘ㅌ’은 ‘ㄱ’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문 ④~⑥의 ‘브리다’는 방언 ‘브르다, 볼르다’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다. ‘베브르다’는 배를 갈라서 자르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방언에서는 생선 따위의 배를 갈라 헤쳐서 속의 알맹이를 꺼내다의 뜻으로 쓰인다. ‘베브르다’는 ‘베볼르다’로도 나타나는데, 방언에서 ‘르’로 끝나는 둘째 음절 앞에 ‘ㄱ’을 덧붙여 ‘ㄱㄱ’로 되는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다.

- ⑦ 재기 생선 배를 베르쓰라/베르싸라.(빨리 생선 배를 베어 가르라.)
- ⑧ 강 보낸 제기 페쌌서라.(가서 보니까, 고기를 베어 가르라.)
- ⑨ 푸대를 빨리 베르싸라.(부대를 빨리 벌려라.)
- ⑩ 베볼르당 보민 낚시도 하영 나오주.(배를 바르다 보면 낚시도 많이 나오지.)
- ⑪ 그 캐긴 베카지 말앙 그냥 볶앙 먹읍주.(그 고기는 배를 가르지 말고

2) 석주명(1947)에서는 방언 ‘팻사다, 베룻사다’를 표제어로 들고 표준어 ‘배째다’를 대응시켰는데, 이는 ‘페싸다, 베르싸다’의 표기로 볼 수 있다.

그냥 볶아서 먹읍시다.)

6) '유을다, 울다[枯]와 '줄다'

방언 '유을다'는 '① 사람이 병 따위로 앓거나 하여 몸이 몹시 야위다, ② 나무 따위가 시들다'의 뜻을 가진 어휘이다. 지역에 따라 '유을다, 이을다, 울다(현평표,1962:456;제주도,1955:263)' 등으로도 나타난다. '살이 빠져 여위다'의 뜻으로 방언에서 '줄다'도 쓰인다.

- ① 한 삼사년을 병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울어.(한 삼사년을 병을 고치지 못해서 야위었어.)
- ② 유을어서 보기탕(保氣湯)을 막 먹었주께.(야위어서 보기탕을 마구 먹었지.)
- ③ 어떻게연 미강냥이 자꾸 유을엄저.(어떻게 해서 밀감나무가 자꾸 시들고 있다.)
- ④ 준 쉼 푸리 켜다.(여윈 소 파리 굶는다.)

방언 '유을다'에 해당하는 표준어는 '이을다'이고, 중세어는 '이불다, 이을다, 이을다[枯]이다. 방언 '줄다'는 근대어 '줄다'에서 '여위다'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⑤ 올흔불히 偏히 이을오 원녁 귀 머구라(右臂偏枯左耳聾)<두해-중 11:14>
- ⑥ 나라히 오라건마련 天命이 다아 갈칙 이븐 남기 새 뉘 나니이다(離邦 離舊 與彼枯木 兜牟三箭 又在于昔)<용가 9:42. 89.>
- ⑦ 性이 이르시면 欲愛 몰라 이우르시고=成이 成히시면 則欲愛 | 乾枯히 시고<능엄 6:30>
- ⑧ 枯 이을 고<유합>, 이을 고<신합-나손본>

중세어 '이불다, 이을다'는 방언에서 특이하게 '유을다, 유을다'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7) '걸다[濃·膏]와 '걸루다[糞]

방언 '걸다'는 '거름 따위가 기름지거나, 밭이나 나무가 기름지다'는 뜻을 지닌 어휘고, '걸루다'는 '걸다'의 사역형으로, '거름 따위로 밭이나 나무 따위를 기름지게 하다'는 뜻을 가진 어휘이다.

석주명(1947:15-26)에 표준어 '걸우다'의 뜻으로 방언 '걸루다'가, 현평효(1985:366)에는 표준어 '걸다(① 흙의 식물의 양분될 성분이 많다, ② 음식의 가지수가 대단하다.)'의 대응어로 '걸다'를 등재하였다.

- ① 지네 밭다 강 보난, 낭들이 걸언게.(자네 밭에 가 보니까, 나무들이 왕성하고 지름져 있던데.)
- ② 보리가 워년 하니까, 멧날 걸루와사주.(보리가 워낙 많으니까, 며칠을 걸게 해야지.)
- ③ 강 보난 낭 잘 걸루와선게.(가서 보니까, 나무를 걸게 했던데.)

'걸다'는 중세어 '걸다[濃·膏]에, '걸루다'는 중세어 '걸오다[糞]에 대응하는 방언이다.

- ④ 돌기 앓 물근 브레 걸에 므라(濃調鷄子清)<구방, 하:13>
- ⑤ 스것 혼 되로 썬 브레 달효되 거로미 환 짓게 두외어든(用牛乳[스것]一升慢火熬成膏候可丸)<구간 1:95>
- ⑥ 糞田 밭 걸오다<역해, 하:7>

8) '굳다[曰]

방언 '굳다'는 '말하다'는 뜻을 가진 어휘로, 모음의 어두음을 가진 어미와 결합하면 '굳-'로 변화한다.

① 밤새남 말 곧단 보난, 날 날 붉아비서라.(밤새도록 말하다 보니까 날이 밝았더라.)

② 아방안퉁 강 굴으라.(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해라.)

방언 ‘곧다’에 대응하는 중세어는 ‘곧다’인데, 확인되는 중세어 자료에서는 ‘굴다’[ㄹ]만 확인되어 중세어사전류에서는 모두 ‘굴다’를 표제어로 내세우고 있다(남광우,1960:20;유창순,1964:10;우리말큰사전,1992:4917). 그러나 ‘굴다’는 ‘곧다’의 ‘ㄷ’ 불규칙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과 같이 중세어사전에서도 ‘곧다’를 표제어로 내세우고, 모음을 어두음으로 하는 모음이 결합되었을 때 불규칙활용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일홈 지허 그로되 釋譜詳節이라 호고=名之曰釋譜詳節이라 호고<월석, 석보상절 서:4>

④ 孟子 | 그루사되 사툼이 道 | 이시매=孟子 | 曰人之有道也에<소해 1:8>

⑤ 曰 굴 왈<유합 상:18>

9) ‘아끄다’[少·微]

방언 ‘아끄다’는 ‘작다’는 뜻을 가진 방언이다. 아직 방언사전류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이다. 다만 접두사로 ‘아끈(제주도,1995:353)’이 올라 있고,3) 복합어인 ‘아끈쟁기’가 올라 있다.

① 아끈쟁기(죄기 전날의 무수기)

② 아끈내(작은 내:서귀포시 강정동), 아끈드랑쉬(작은 드랑쉬:구좌읍 세화리)

3) ‘아끈’은 지명 표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악근’으로 표기(박용후,1988:209)한 것과 취음 표기인 ‘岳近’으로 쓰는 것은 모두 잘못이다.

예문 ①과 ②의 '아끈'은 모두 관형어로서, 접두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아끈'은 중세국어의 '앗-'의 관형사형 '아츰'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석주명(1947:66)에는 '악근죄기', 박용후(1988:14)에 '아끈죄기', 현평효(1985:499)에 '아끈죄기, 아끈조기'를 표제어로 올렸다.

③ 아수와 아츰아돌왜 비록 이시나 書信을 얻디 못흐리로소니(弟姪雖存不得書)<두해-초 11:13>

④ 姪 아츰아돌 同姓 俗呼姪兒...甥 아츰나돌 칭 又婿曰甥 又女之子曰外甥<훈몽-초, 상:16>

⑤ 微 아츰 미<백련-동경 17> 姪 아츰나돌 덜...甥 아츰나돌 칭<훈몽-중, 상:32>

⑥ 아츰쓰리 아버 업스니왜 남진 업스니 잇거든=姪이 有孤孀者 |어든<번소 9:103>

이기문(1983:1993)은 중세국어의 '아자비', '아즈미'와 『계림유사』, 『대명률직해』의 대응 예들을 검토하고서, '아츰'은 '앗-'에 '흔(ㅎ--+ㄴ)'이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방언에서 '아끈드랑쉬'를 '아진드랑쉬'라고도 하는데, 이때의 '아진'은 방언 '아지-[座]에 관형사형어미 '-ㄴ'이 붙은 것이 아닌 '앗+인'으로 볼 수도 있다.

⑦ 伯叔亦皆曰了查秘 叔伯母皆曰了子彌... 孫曰了了了姐/伯叔도 모두 '아자미'라 한다. 叔伯母 모두 '아즈미'라 한다. ... 孫을 '아츰아돌'이라 한다. <鷄林類事>

⑧ 吾矣同姓三寸小爲母果異姓三寸小爲父果異姓三寸小爲母等矣所生乙交嫁者杖八十並只離異(若娶己之姑舅兩姨姊妹者杖八十並離異)/나의 同姓(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자매)인 삼촌 작은어머니와, 배다른 삼촌인 작은아버지와, 배다른 삼촌인 작은어머니들의 所生을 交嫁한 사람은 곤장 80에 처하고, 모두 離異한다.<대명률직해 65ㄴ>

중세국어의 '아츰'은 방언에서 '츠'이 격음화하여 '아끈'으로 변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아촌’이 ‘앗+훈’의 구성으로 볼 수 있으나, 방언의 ‘아관’은 ‘*아끄--+ㄴ’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 ‘짓다[密]

방언 ‘짓다’는 표준어 ‘깃다’에 대응하는 방언이다.

- ① 우영팍다 강 보난 검질이 짓어선계.(뒷밭에 가서 보니까 김이 무성했 던데.)
- ② 木密岳[남짓은오름:제주시 연동]<탐라지도(1909)>

방언 ‘짓다’에 대응하는 중세국어는 ‘깃다’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방언 ‘짓-’은 ‘깃-’이 구개음화한 것이다.

- ③ 긴 수프리 즈모 부르매 불이느니 그울 프리 짓고 또 퍼러토타.(長林何 蕭蕭 秋草萋更碧)<두해-중 2:68>
- ④ 鬱密은 기순 양치오<남명 하:35>

11) ‘옛다·웃대[窺], 옛우다·웃우다·웃아다, 옛아듣다·웃아듣 다, 옛아보다·웃아보다[窺]

현대국어 ‘야수다(기회를 노리다:너무 야수지만 말고 용기를 내라.)’ 또는 ‘여수다, 옛보다’에 대응하는 방언에 ‘옛다·옛우다’ 또는 ‘웃다·웃우다’ 등이 있다. 이는 중세국어 ‘옛다 / 옛오다·엿오다·옛우다’에 대응하는 하는 표기이다. 이에 ‘듣다’와 ‘보다’가 복합되어 ‘옛아듣다·웃아듣다, 옛아보다·웃아보다’ 등의 어휘가 다시 만들어진다. ‘옛우다, 옛아듣다’

등의 변이형도 나타난다.

- ① 놈의 말 듣게 **웃**ampus과?(남의 말을 들으려고 엿듣고 있습니까?)
- ② 어른말은 잘 **웃**아들어산다(어르신의 말은 잘 새겨 들어야 한다.)
- ③ 무사 경 **웃**아팸시니?(왜 그렇게 엿보고 있느냐?)

석주명(1947:69)에 ‘예사본다’가 표준어 ‘엿본다’의 뜻으로, ‘예상듯다’가 표준어 ‘엿듣다’의 뜻으로 등재되어 있고, 현평효(1962:505)에 표준어 ‘야수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으시다, 여스다’가, 표준어 ‘엿듣다’의 뜻으로 ‘엿아듣다, 옛아듣다, 웃아듣다’가, ‘엿보다’의 뜻으로 ‘엿보다’가 등재되어 있고, 박용후(1988:111)에 방언 ‘여사다, 예사다’를 등재하고 ‘기다려서다’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동사어간을 소리나는 대로 적느냐 밝혀 적느냐에 따라 동사어간의 발음을 분철시키거나 연철시킨 차이만 있을 뿐이다(이 글에서는 어간을 밝혀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은 모두 중세국어 ‘엿다’[窺]와 관련된 어휘들이다.

④ 이 마를 삼가 이베 내디 말라 다룬 사르미 여서드르리라(신물출구타인 저[...狙는 窺聽이니 恐賊謀之聽也 |라]).<두해-초 8:3>

⑤ 내 弟子 | 窺으로 여서 지블 보니 = 我有弟子 | 窺窺窺室히니<능엄 5:72>

⑥ 더주수메 그스기 두서 공을 여수보니 나라 다스릴 지조롤 또 뒷는 사르미러라(向窺窺數公 經綸亦俱有)<두해-초 8:55>

⑦ 窺窺를 엿오더니=窺窺窺窺히더니<법화 2:123>

⑧ 도흔 막히 그스기 채 엿우미 군호물 免히리라 히니=免同良馬인 暗窺鞭이라 히니<금삼 2:2>

⑨ 佛祖도 엿을 분이 업스시니라<남명, 상:3>

⑩ 可히 사롬의 스스 유무를 여어보다 아닐 거시며=不可窺人私書 |면<소해 5:101>

⑪ 窺 여러불 처<신합, 하:20>

⑫ 窺 여을 규 伺 여을 스<신합, 하:33>, 窺 엿불 규 覘 엿불 덩<훈몽-

초, 하:12>

⑬ 못그새 고기 옛느니는 수업슨 가마오디오(河邊兒窺魚的 是無數目的水老孺)<박번, 상:70>

12) '발다'[榜]와 '발아덴기다'

방언 '발다'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표준어 '바래다'에 대응하는 뜻으로, '햇빛 등에 옷 따위의 색이 변하다'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중세국어 '발다'[榜]에 대응하는 뜻이 있다. 또 하나는 중세국어 또는 현대국어의 '밧다'에 대응하는 뜻이 있다.

먼저 표준어 '바래다'에 대응하는 방언은 '발다, 바래다, 발래다' 등으로 나타난다. 석주명(1947:45)에 '발래다'가, 현평효(1985:446)에 '바래다, 발래다'가 올라 있다.

중세어 '발다'[榜]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발다'가 있다, 박용후(1988:106)에 '발다'를 등재하고, '위험한 곳을 조심스럽게 밧아 가다'라고 설명하였다. 현평효(1985:449)에 '발아드니다, 발아덴기다'를 등재하고, '담 위 같은 데를 걸어 다니다'로 설명하였다. 강영봉(1994:71)에도 '건다'의 특이한 어휘로 '발다'를 들었고, '담 밧다'는 '담 위를 걸어가다'의 뜻으로 설명하였다.

- ① 경 담 밧아덴기담 떨어진다.(그렇게 담을 밧아다니다가 떨어진다.)
- ② 가의 낭위를 밧았서라.(그 아이 나무 위를 오르고 있더라.)

예문 ①과 ②와 같이 방언 '발아덴기다, 밧다'는 나무나 담 위에 올라 이리저리 다닌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는 중세어 '발다'[榜]에 바로 대응하는 어휘이다.

- ③ 실에올 바라 舊秩을 7즈기 ㅎ고(傍架齊舊秩)<두해-초 7:6>
- ④ 鬼物은 어스르메 바라 든니누다(鬼物傍黃昏)<두해-초 8:12>
- ⑤ 반춧 니피 창 의 발아시니 봉위 소리 긴 돛 ㅎ도다(蕉葉當窓鳳尾長)<백련-일사 4>

예문 ③과 ⑤의 중세어 '발다'에 대응하는 한자는 傍과 當이다. 傍은 '기대다, 곁에서 떨어지지 않다, 바짝 달라붙다'의 뜻이 있고, 當도 '착하다 / 비기다, 비의하다(比擬-)'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중세국어나 방언의 '발다'는 '바짝 달라붙다'의 뜻으로 쓰였다. 예문 ④의 '발아 든니다'는 방언의 '발아드니다, 발아탱기다'에 바로 대응하는 어휘로, '발다'와 '든니다'가 결합한 복합어이다.

13) '심다'와 '심지다'[授]

방언 '심다'는 '붙잡다'는 뜻과 '파종하다, 식재하다' 등의 뜻이 있다. 후자의 뜻은 중세어 '심다, 시므다, 시므다'[種·栽培·植]에 바로 대응한다. 그런데 전자의 뜻을 가진 '심다'에 사동의 뜻을 가진 접사 '-지-'가 붙은 '심지다'는 중세어 '심기다'에 바로 대응된다. 방언의 '심지다'는 물론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남이 붙잡게 한다는 뜻을 가진 어휘이다.

석주명(1947:63)에는 표준어 '부쓸리다'[→붙들리다]의 뜻으로 '심졌다'를, 표준어 '가지게 하다'의 뜻으로 '심지다'를, 현평효(1985:466)는 표준어 '붙잡히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심지다'를, 박용후(1988:110)는 표준어 '붙들리다'와 '잡게 하다[使執·使捕]'의 뜻으로 '심지다'를 각각 등재하였다.

- ① 집에 든 꿩 놔 둠 밧디 꿩 심젠 혼다.(집에 들어온 꿩을 놔 두고 밧에 있는 꿩을 잡으려 한다.)
- ② 어서강 자의한티 그걸 심지라.(어서 가서 저 애한테 그것을 주어라.)

방언 '심지다'는 중세어 '심기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곧 방언 '심지다'가 중세어 '심기다'에서 둘째 음절 초성 '기'이 'ㅈ'으로 구개음화한 것이다.

- ③ 묻져 더 사랴물 심기고 後에 그 體에 著히며=先授彼人히며 後著其體히며<능엄 9:105-106>
- ④ 부테 그스기 심기샤물 바라습더니=冀佛冥授<능엄 5:29>
- ⑤ 教授는 7라쳐 심길 씨라<석보 6:46>
- ⑥ 간대로 사롬 심규미 묻히리니<법화 4:86>

한자 授는 '주다, 전하여 주다, 잡게 넘겨주다'의 뜻이 있다. 그런데 중세어 '심기다'는 단순히 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전하여서' 당사자가 받거나 붙잡게 하는 것까지를 뜻한다. 그러므로 '심기다'는 단순한 동사가 아니고 사동의 접사가 붙은 형태로 보아야 한다. 현재의 중세어 사전은 모두 '심기다'를 단일동사로 다루고(우리말큰사전,1992:5208), '주다, 전하다'로 풀이하고 있다.

14) '버리다'와 '찌지다, 치지다'[割]

방언 '버리다'는 '물건을 내던지다' 또는 '물건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다'의 뜻으로 표준어 '버리다', 중세국어 '버리다'[捨]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그런데 중세어 '버리다'는 捨(버리다>붙이다)의 뜻과 剝·割·膾(버리다>부르다)의 뜻 두 가지로 쓰이는데, 방언의 '버리다'도 전자의 뜻은 물론 '찢다'[割]의 뜻으로도 쓰인다. 한편 '버리다'의 방언형 '부르다, 부르다'는 剝 또는 膾의 뜻도 가지고 있다. 방언 '버리다'는 표준어 '바리다, 베다'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割의 뜻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방언 '찌지다'와 '치지다'는 표준어 '찢다'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방언의 ‘브리다’는 ‘종이 또는 옷 따위를 찢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표준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 ① 그 신문지를 브리라.(그 신문지를 찢어라.)
- ② 어떻게연 옷 브러져시니?(어떻게 해서 옷 찢어졌니?)

석주명(1947:53.84)에 표준어 ‘터진다’(‘터지-’에 ‘-나다’가 붙은 형태)의 뜻으로 방언 ‘브러진다’(‘브러지-’에 ‘-나다’가 붙은 형태)를, ‘찢다’의 뜻으로 방언 ‘치지다=버리다’를 등재하였다. 현평효(1985:453.555)에 표준어 ‘버리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버리다, 브리다’를 들고 ‘내던지다, 쓰지 못하도록 만들다, 잡아 당기어 찢다’의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하였고, 표준어 ‘찢다’의 뜻으로 ‘찌지다, 치지다, 찢다’, 표준어 ‘찢어지다’의 뜻으로 ‘치저지다’와 ‘찌저지다’를 등재하였다. 박용후(1988:109.116)에 표준어 ‘찢다’의 뜻으로 ‘브리다’와 ‘찢다’, 표준어 ‘찢어지다’의 뜻으로 ‘찢어지다’를 등재하였다. 이 뜻에 대응하는 중세어는 ‘브리다>브르다’[剪]이다.

- ③ 고티를 돈기티 브리고(將爾剪如錢)<구방, 상:48>=고티를 돈만케 브러 <구간 6:16>

예문 ③의 ‘돈기티 브리다’는 ‘돈같이 찢다’는 뜻으로, 방언 ‘브리다’에 바로 대응하는 것으로, ‘찢다’의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찢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찌지다’와 이의 어두격음화에 의한 ‘치지다’, 그리고 ‘찢다’가 있다. 이들은 중세어 ‘뺏다’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다.

- ④ 그 龍을 자바 브저 머저늘<석보 6:32>
- ⑤ 내 네 마디마디 활기 브즐 제=我於往昔節支解時에<금육 79>
- ⑥ 撕 브즐 스 俗稱撕碎 又曰撕開<훈몽-초, 하:6>

15) '지들루다, 지들우다'와 '지들뢰지다[壓], '지들르다, 지들루다'와 '지들이다, 지드리다'[待·俟]

방언 '지들루다, 지들우다'는 '무거운 물건 따위로 내리누르다'는 뜻의 현대국어 '지지르다'에 대응하는 타동사이다. 석주명(1947:79)에 표준어 '지지르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지들루다, 지들우다, 지들우다, 닳주다'를, 현평효(1985:552)에 표준어 '지지르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지들우다', 박용후(1988:114)에 표준어 '지지르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지들르다'를 등재하였다.

방언 '지들뢰지다'는 피동사로 쓰인다. 석주명(1947:79)에 표준어 '치이다'의 뜻으로 '지들라지다'와 '덧놔다'를, 현평효(1985:550)에 방언 '지들라지다'를 '무거운 물건이 위로 눌러지다'의 뜻으로, 박용후(1988:114)는 표준어 '눌리다, 치이다'의 뜻으로 방언 '지들라지다'를 등재하였다.

방언 '지들르다, 지들루다'와 '지들이다, 지드리다'는 표준어 '기다리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 ① 놀음 돌로 지들루라.(장독 덮개를 돌로 지지르라.)
- ② 가인 담에 올랐단, 담으로 지들뢰전 죽언.(그 아이는 돌담에 올랐다가, 돌담으로 지질려서 죽었다.)
- ③ 어멍 지들럼시냐?(어머니 기다리고 있는냐?)
- ④ 지들이지 말앙 먼저 밥 먹으라.(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을 먹어라.)

방언 '지들루다'에 대응하는 중세어는 '지즐우다[壓]이고, '지들뢰지다'에 대응하는 중세어는 '지즐이다'이다. 방언 '지들르다'는 중세어 '기들우다/기들오다>기들우다/기들오다>기도로다/기들오다/기두르다'[待·俟]에, 방언 '지들이다, 지드리다'는 중세어 '기드리다>기들이다>기드리다'[待]에 대응한다.

⑤ 세흔 有情을 지즐우며 떠디여 四生에 잇게 흐는 전치오(三壓漏有情處 四生故)<원각, 상1-1:86>

⑥ 낱 지즐을 칩 狹也 壓也 又失釵也 壓 지즐을 압<훈몽-초,하:5>

⑦ 들흔 담 지즐이시오 세흔 므래 싸디시오(二曰牆壁壓迫 三曰瀾水)<구방, 상:25>

⑧ 나모 돌해 지즐여 혼굴으티 상하야(木石所壓一切傷損)<구간 1:78>

고기룰 그므래 자보몰 기들오노라(待魚罾)<두해-초 20:24>

아로몰 기들우디 마롱 디니라=待悟 1니라<몽산 5>

내 날호야 기드리좁디 아니흐스외=而我不疑待흐스외<법화 2:7> 俟 竣
기드릴 스<신합, 하:30> 待 기드릴 티<유합, 하:34>

술위 메음울 기들이디 아니코 가더시다=不俟駕行矣러시다<소해 2:42>

반드시 귀운이 채 소복기룰 기들러 다스리미 가흐고(必須完復之後方可)<두창방 69>

‘지들루다’는 중세어 ‘지즐우다’에서 둘째 음절 초성 ‘ㅈ’이 보통의 구개음화와는 반대로 ‘ㄷ’으로 치음화하고, 둘째 음절의 종성 ‘ㄹ’과 셋째 음절 초성 ‘ㅇ’이 결합할 때 ‘ㄹㄹ’로 변화한 것이다. ‘기드리다, 기들이다’가 ‘지드리다, 지들이다’로 실현되는 것 역시 어두음 ‘기’가 ‘지’로의 구개음화에 의한 것이다.

16) ‘즈르다, 줄르다, 쫘르다’[短]

방언 ‘즈르다 · 줄르다 · 쫘르다’는 현대국어 ‘짧다’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① 줄이 쫘란 안돼키여.(줄이 짧아서 안되겠다.)

② 즈른즈른흔 해에 빨리 일을 꾸까사주.(짧고 짧은 해에 빨리 일을 마쳐야지.)

방언 '즈르다'에 대응하는 중세국어는 '더르다·더르다'[短]가 있다. '더르다·더르다'는 근대국어에서 첫 음절 'ㄷ'이 'ㅅ'으로 구개음화되어 나타난다. '더르다·더르다>다르다·다르다>저르다·절으다·저르다·자르다'로 변화한다. 방언의 그것도 구개음화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첫 음절의 이중모음 'ㄱ'이 'ㅇ'로 단모음화하여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③ 能히 더른 것 밧고야 긴 거시 ㄷ외에 ㅎ야=能易短爲長 ㅎ야<몽산 48>, 日短 ㅎ 더른다<동해, 상:3>

④ 슬픈 놀에 時로 절로 더르니 醉 ㅎ야서 춤추믄 누를 爲 ㅎ야 쓰리오(哀歌時自短 醉舞爲雜羅)<두해-초 7:15>

⑤ 둘재는 고을 官員의 길며 다르며 울히 ㅎ며 ㅅ르움을 ㄴ으디 아니홈이오.=二는 不官州縣官員長短得失이오<소해 5:100>

⑥ 다른 뵈 우퇴를 ㅅ라 ㅅ고=更著短布 ㅅ ㅎ야<번소 9:59>, 襦 다른 함웃 유<신합, 상:31>

⑦ 上層短 입 옷시웁 저르다<한청 6:5>

⑧ 豆餵 모도미 심히 저르고 ㅅ르니(良會苦短促)<두해-중 22:40>

⑨ 短齋 절은 지계<역보 10>

17) '므끄다·므치다'[終·了]

방언 '므끄다·므치다'는 현대국어의 타동사 '맞다·마치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석주명(1947:43)에 표준어 '맞는다, 마친다'의 대응어로 방언 '므끄다, 므친다'를 들었고, 현평효(1985:425)에 표준어 '마치다'[終]의 대응어로 방언 '므치다'를 들었다.

① 일을 ㅅ리 ㅅ까블렌 ㅎ난 뒤 ㅎ시니.(일을 ㅅ리 마쳐버리라고 하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

② 그 사람 그 일 무치젠 허민 힘들거라.(그 사람 그 일을 마치려고 하면 힘들 것이다.)

현대국어의 ‘맞다’와 ‘마치다’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지만, 방언 ‘무끄다·무치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이에 대응하는 중세어 ‘뭏다, 무츄다’[𪛗·了]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무츄-’는 근대국어에서 ‘뭏츄-’와 ‘뭏츄-’로도 나타나는데, 방언 ‘무끄다·무치다’는 ‘뭏츄-’와 ‘뭏츄-’의 변형으로 보인다. 곧 ‘ㅅ’과 ‘ㄷ’의 일부는 경음 ‘ㄱ’, 일부는 격음 ‘ㅈ’으로 변하여 남은 것으로 보인다.

③ 목숨 무차리잇가(性命奚辨戈)<용가 7:14. 51>

④ 말을 뭏츄며 장츄 니러 갈식(言罷將去)<태평 1:8>

18) ‘버물다’와 ‘버므리다/버물리다’[濁]

방언 ‘버물다’는 ‘때 같은 것이 묻어 더러워지다’의 뜻을 가진 어휘이고, ‘버므리다’는 제주도방언과 표준어에 다 쓰이는데, 방언의 그것은 ‘어떤 것에 다른 것을 골고루 뒤섞다’는 뜻에다 ‘더럽히다’의 뜻을 더 내포하고 있는 어휘이다.

석주명(1947:47)은 방언 ‘버무러다’를 표준어 ‘더러웠다’에, 방언 ‘버무러부러다’를 표준어 ‘더럽혔다’에, 방언 ‘버무린다’와 ‘버물다’는 표준어 ‘더럽히다’에, 방언 ‘버문다’는 표준어 ‘더러워진다’에 대응시키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단어로 등재시키기에 어려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① 무사 경 옷 버물어시니?(왜 그렇게 옷이 더러웠느냐?)

② 옷 버무리지/버물리지 말라.(옷 더럽히지 말라.)

③ 집치에 경 버무령 되느냐?(김치에 그렇게 섞어서 되느냐?)

예문 ①의 '버물다'와 ②의 '버무리다'는 옷 따위를 더럽히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고, ③의 '버무리다'는 음식물 따위에 다른 것을 섞는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③의 경우는 표준어 '버물다, 버무리다'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①과 ②는 방언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방언 '버물다'에 대응하는 중세어는 '버물다'이고, '버무리다'에 대응하는 중세어는 '버무리다'이다.

④ 賢女 |...더러운 이레 버므디 아니흐며=賢女 |...不涉穢濁흐며<내훈-초 1:2>

⑤ 緣은 六塵에 버물 시니<금삼 2:34>, 羅 버물 리<신합, 하:10>, 蓮累人 버른 사람<역해 상:65>

⑥ 愚累는 시름 버므로미라<월석 18:32>

⑦ 만일 明日에 일이 니러나면 온집 사툼이 버므리여 다 죽을 썸시니(假如明日事發起來時 帶累一家人都事也)<박번,중:28>

⑧ 덩 버무리는 막대로 콩 므를 버므려 주워 머기고(着擱草昆 拌饋他些料水喫)<박번,상:22>

중세어 '버물다'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예문 ④와 같이 '더럽다. 더럽히다'[穢]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예문 ⑤와 ⑥과 같이 '엷매이다. 관계되다. 연이 있다'[累·緣·羅]는 뜻으로 쓰였다. 방언에서는 주로 전자의 뜻으로 쓰인다. 중세어 '버무리다'도 예문 ⑦과 같이 '연루되다'의 뜻과 ⑧과 같이 '섞다'의 뜻 두 가지로 쓰였다. 방언에서도 이 두 가지의 뜻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19) '쫓다'와 '쫓아가다, 쫓아오다'[尋]

방언 '쫓다'는 표준어 '찾다'에, 방언 '쫓아가다'는 표준어 '찾아가다'에, 방언 '쫓아오다'는 표준어 '찾아오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이에 대응하

는 중세어는 각각 ‘쫓다, 좃자가다, 좃자오다’이다,

- ① 어디 가신디 모르키여, 빨리 좃이라.(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빨리 찾아라.)
- ② 좃아와 췌 고맙수다.(찾아와 췌서 고맙습니다.)
- ③ 좃아강 보난 어서라.(찾아가 보니 없더라.)

④ 불러 좃졸 興은 학마 專一학라(招尋興已專)<두해-초, 20:11> 尋 좃졸
심<천자-석 31>

⑤ 黃河를 좃자갈시 아노니 잇는 동 업슨 동 학니라(尋河知有無)<두해-초 9:30>

⑥ 나를 풀 기슨 길히 그는 티로 좃자와 오슬 거두드러 춘 비를 밟는다
(尋我草徑微 襄襄踏寒雨)<두해-초 9:9>

최근 민간에서 방언 사용이 일상되면서 방언 표기에 혼란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쫓아오다’와 ‘좃자오다’가 그 한 예이다. 방언의 표기를 중세어와 같이 연결하는 것을 일반화한다면 ‘좃자오다’를 쓰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대어와 같이 어원을 밝혀주는 것을 일반화한다면 ‘쫓아오다’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

20) ‘중그다’와 ‘중가지다’

방언 ‘중그다’는 표준어 ‘잠그다’에, 방언 ‘중가지다’는 ‘잠기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중가지다’는 ‘중그다’에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지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 ① 문 중그지 말아 가라.(문 잠그지 말고서 가라.)
- ② 문 중가져부난 못 열크라라.(문 잠겨버리니 열겠더라.)

방언 ‘중그다’에 대응하는 중세어는 ‘좁기다’와 ‘조므다>조므다>조무

다'가 있는데, '중그다'는 '좁기다'의 직접 변이형으로, 어두말음 'ㄹ'이 'ㅇ'으로 변하고 둘째 음절 모음 'ㅣ'가 'ㅡ'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門돌홀 다 구다 좁겨 뒗더시니<석보 6:2>
- ④ 門을 다 즈막고 유무 드룸 사롬도 업거늘<석보 6:2>

21) '지올다'와 '지올이다', '자올다'와 '자올이다', '주우룻ㅎ다'와 '자우룻ㅎ다'

방언 '지올다'와 '지올이다'는 각각 표준어 '기올다'와 '기올이다'에, 방언 '자올다'와 '자올이다'는 각각 표준어 '가올다'와 '가올이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방언 '주우룻ㅎ다'와 '자우룻ㅎ다'는 각각 표준어 '기웃하다'와 '가웃하다'에 대응한다.

석주명(1947:80)에 표준어 '기올이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지우리다, 자우리다, 중우리다, 튼리다' 등을 들었고, 현평효(1985:363)에 방언 '자올이다'는 표준어 '가올이다'에, 표준어 '기올이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주올이다, 지올이다, 중올이다, 기올이다' 등을 들고 있다.

- ① 평을 경 지올영 되느냐?(병을 그렇게 기올여서 되느냐?)
- ② 경 자올이지 말라.(그렇게 가올이지 말라.)
- ③ 지집년 방에 들어난 늙은 혼 번 가나민 주우룻ㅎ다.(계집방에 들었던 늙은 한 번 가고 나면 기웃한다.)
- ④ 애기 고개 자우룻하게 흐지 말라.(애기 고개를 가웃하게 하지 말라.)

방언 '지올다'와 '지올이다'는 각각 중세어 '기올다>기올다'와 '기우리다>기오리다'에 바로 대응된다. 방언 '자올다, 자올이다'와 표준어 '가올다, 가올이다'는 각각 중세어 '기올다, 기우리다'의 작은말로 분화한 것

이다. 방언 ‘주우룻하다’와 ‘자우룻하다’는 중세어 ‘기웃하다>기웃하다’에 대응되는 어휘이다.

- ⑤ 큰 지비 기울어든 더위자보미 맛당하니라(大廈傾宜扶)<두해-초 22:46>
- ⑥ 네 賽齊이 天下엿 귀를 가우리게 하더니라(昔賽齊傾聞天下耳)<두해-초 16:50>
- ⑧ 幽深한 고즌 기웃하야 남귀 그독하얏고(幽花欽滿樹)<두해-초 7:20>

22) ‘퀘다’와 ‘퀘우다’[愛·寵]

방언 ‘퀘다’와 ‘퀘우다’는 표준어 ‘괴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사람 따위를 특별히 귀엽게 사랑하거나 물건 따위를 아끼다’의 뜻이다.

- ① 아무 짐승이라도 퀘와 두민 주인을 살리는 것도 시어.(아무 짐승이라도 아껴주면 주인을 살리는 것도 있어.)
- ② 퀘운 쿨 퀘우젠 하민 미운 쿨도 퀘와진다.(좋은 풀 이끼려면 미운 풀도 아껴진다.)

예문 ①과 ②를 통해서 동사 ‘퀘우다’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귀엽게 대하거나 아끼다’의 뜻으로 쓰였다. 방언 ‘퀘우다’는 중세어 ‘괴다, 괴오다’에 바로 대응하는 어휘로, 타동사로 쓰인다.

- ③ 괴여 爲我愛人而 괴여 爲人愛我<훈민-원, 해례:21>
- ④ 그스기 고은 양하고 괴오물 取하느니=陰翫取寵하느니<선가, 하:51>

23) ‘굿올리다’와 ‘수뚱주다’

방언 ‘굿올리다’와 ‘수뚱주다’는 ‘흙 따위로 식물의 뿌리를 두두룩하게

덮어 주다'의 뜻을 가진 표준어 '복주다, 복도두다' 등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석주명(1947:21)에 표준어 '복돋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긋올리다(북부어), 수듬주다(남부어)'를, 현평효(1985:463)에 표준어 '복올리다(오이, 호박 따위의 밑동에 흙을 모아 올린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긋올리다'를, 박용후(1988:100)에 표준어 '복돋다[塿]'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긋올리다'와 '수듬주다'를 등재하였다.

방언 '긋올리다'는 '긋(구덩이)'에 '올리다'가 덧붙은 복합어로, '긋'은 중세어 '긋' <긋[窞·坑·坎]>에 대응하는 어휘이고, '올리다'는 '올이다 > 올리대[踰·上]'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① 굴 푸고 블 꿔우이 <월곡 60> 싸홀 파 굴 밍굴오(掘地作坑) <구간 1:75>

② 窞 굴 교 地窞 <훈몽-초, 중:5> 坑 굴 깡 坎 굴 감 <훈몽-초, 하:8>

③ 소롯 불희롤 긋의 녀코 겨울의 둔둔이 더퍼(羊蹄根納之坑中冬月蓋窞密填) <구황방 15>

방언 '수듬주다'는 '거름'의 뜻을 가진 방언 '수듬'에 '주다'가 덧붙은 복합어인데, '수듬'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24) '그치다, 기치다, 끈다'와 '그차지다, 기차지다, 끈어지다'[伐·斷]

방언 '그치다, 기치다, 끈다'는 표준어 '끊다'에, '그차지다, 기차지다, 끈어지다'는 표준어 '끊어지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석주명(1947:23)에 표준어 '싹혀써리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기차버리다'를, '싹혀진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기차진다'를, 표준어 '싹타'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기친다'를, 현평효(1985:383)에 표준어 '끊다'에 대응하

는 방언으로 '그치다'와 '끈다'를, 표준어 '끊어버리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그차불다'와 '끈어불다'를, 박용후(1985:100)에 표준어 '끊다'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그치다'와 '기치다'를 등재하였다.

- ① 그 낭이랑 기치지/그치지/끈지 말앙 놔두라.(그 나무는 끊지 말고서 놔두어라.)
- ② 그냥 잡앙 잇어신디. 오곳 기차져/그차져/끈어져 불어라.(그냥 잡고 있었는데 그만 끊어져 버리더라.)

방언 '그치다'와 '기치다'는 중세어 '그치다>길치다'[伐·斷]에, '끈다'는 '길다'의 후대형 '길다>쓴다'에, '그차지다'와 '기차지다'는 중세어 '그쳐디다'에, '끈어지다'는 '그쳐지다'의 후대형 '길쳐디다/길쳐디다/길혀디다'에 바로 대응하는 어휘이다. 방언에서 '그치다'는 'ㅣ' 모음 역행동화를 일으켜 '기치다'로도 실현된다. 방언 '그치다, 기치다'는 중세어 '그치다'와 같이 '타동사로, '그차지다' 등은 중세어 '그쳐디다'와 같이 자동사로 쓰인다.

- ③ 絶 그출 절 斷 그출 단<신합, 하:12>
- ④ 사루몬 戈艇을 그치시과더 사랑흐눔다(伐人謹止戈艇)<두해-초 20:4>
- ⑤ 시혹 솔히 그쳐디며 꺾야디거든(或肌肉斷裂)<구방, 상:82>
- ⑥ 絶 쓴홀 절<왜어, 하:36> 橫擊 그르 쓴허 치다<한청 4:35>
- ⑦ 수 킷 니예 쓴지 아니흐고<삼역 3:8>
- ⑧ 낭식이 다 쓴혀디니(擧置)<오름도 4:21>

III. 결 론

위에서 우리는 제주도방언에서 중세·근대어에 대응된다고 생각하는 몇 개의 동사류 어휘를 선택하여 방언에서의 형태적인 변화는 물론 어

휘의미적인 변화 등도 살펴보았다.

연구 과정에서 종전에 중세·근대어의 잔형으로 인식하지 못한 어휘들을 몇 개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방언권에서와 달리 특이한 형태 변화 및 의미적인 변화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금까지 방언사전류에 등재한 어휘들 중 일부는 새롭게 형태 분석을 해야함은 물론 대표 어휘를 새롭게 정리하여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현재의 중세어 사전류는 대부분 연철 표기한 중세어 그대로를 대표형으로 정하고 사전의 표제어로 삼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방언사전류를 정리할 때는 이러한 중세어의 표기 원칙을 그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현대의 맞춤법과 같이 원형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원형을 밝혀적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서 정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신항(1980, 1990), 『계림유사 「고려방언」 연구』, 성균관대출판부.
강영봉(1994, 1997), 『제주의 언어 1』, 도서출판 제주문화.
강영봉(1997), 『제주의 언어 2』, 도서출판 제주문화.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보경문화사(1986), 『대명률직해』.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편집부.
오창명(1995), “제주도방언 조사의 성과와 문제점”, 『백록어문』 11집.
백록어문학회.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제주도(1995), 『제주어사전』
현평효(1962, 1985),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태학사.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